

中共에 있어서의 歷史動力論爭**

—階級鬭爭인가 生産力인가—

閔 斗 基*

1949년 中共政權 成立後 中共 歷史學界 방향의 지표를 設定한 사람으로 翦伯贊을 들 수 있다. 그는 1950~60년대에 마르크스주의 역사이론을 중국역사해석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을 보인 사람으로, 그의 要點은 「歷史主義」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역사적 史實을 오늘날의 입장에서 進歩的이나 아니냐, 革命的이나 아니냐하고 論斷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狀況과 조건을 따져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역사발전에 공헌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農民起義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서 簡單化와 庸俗化를 배격하는 입장으로 소위 「讓步政策論」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翦의 理論은 구체적으로 「中國古代의 封建社會를 論함」(1950.11) 및 「中國의 古代의 農民戰爭을 論함」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1939년 延安에서 毛澤東이 발표한 「中國革命과 中國共產黨」에서 보이는 農民戰爭論의 註釋書로 쓰여진 것이다. 毛의 글은 中國의 社會主義革命을 領導하는 中國共產黨의 활동이 역사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를 규정함으로써 社會主義革命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한 것인데, 農民叛亂과 관련하여서는 두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역사상 농민폭동은 당시에 아직 새로운 生産力과 生産관계 및 계급역량이 없어 先進的인 政黨이 없고, 農民戰爭과 農民起義는 領導를 얻지 못하여 실패하여 버리고 대규모의 농민혁명투쟁 때마다 社

* 서울大學校 人文大 教授(東洋史學)

** 이 글은 1980년 7월 28일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會의 진전이 다소 이루어 지긴 했지만 봉건적인 체제는 여전히였으며 둘째는 中國의 封建社會에 있어서 오직 이런 農民의 계급투쟁만이 역사 발전의 진정한 動力이 되어왔으며,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封建統治에 타격을 주어 社會生産力의 발전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였지만 農民起義가 실패한 뒤 封建統治者가 취한 정책은 양보 아닌 가혹한 탄압뿐이었다는 反攻倒算論을 내세우기도 하고, 生産力의 개념을 가지고 반박되기도 하였다. 즉 封建社會내에서의 점진적인 발전은 封建社會를 칭송하는 것이 되어 버림으로 아직까지 封建社會의 遺産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中國의 특성상, 용납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農民起義가 실패한 뒤 地主 계급에 의한 讓步가 있었느냐 하는 것과 아울러, 있었다면 강화된 것이 封建統治나 封建制度나 하는 식의 論議는 毛의 첫번째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데 農民起義의 실패와 封建制度의 강화와의 연관관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毛의 두번째 원칙에 입각하여 社會 生産力개념이 원용되게 된다.

예로서 白壽彝는 農民起義가 封建制度에 조금씩 타격을 주거나 封建的 制度하에서의 야만적 부분을 조금씩 개조함으로써 社會生産力의 발전은 추진하였으되, 封建制度의 발전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李蔭農 같은 이는 농민전쟁은 封建統治를 개조하고 生産관계를 조정하여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전을 구속하고 있는 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社會生産力을 발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孫祚民은 農民起義가 封建制度에의 타격과 약화를 통하여 生産力의 발전을 추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적인 논의는 1960년대 후반 文化革命의 소용돌이와 四人幫의 득세 시기에 자취를 감추고, 批孔批林이니 儒法論爭이니 하는 소위 影射史學으로 一方的인 농민혁명 계급투쟁 찬양론이 판을 치면서, 翦伯贊은 戚本禹같은 四人幫추종자에 의해, 부르조아 歷史主義를 가지고 階

級觀點에 대항하였고 農民革命을 歪曲하고 모욕하였다는 죄목으로 규탄되다가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서 四人幫이 축출되고 鄧小平 영도하의 實用主義的 穩健派가 득세하면서 다시 學術的인 歷史動力論이 전개되게 되는데, 1979년 戎笙에 의해서 발표된 「오직 農民戰爭만이 封建社會發展의 진정한 動力인가?」라는 글에서 毛의 두번째 원리에서 나오는 「階級鬭爭, 農民起義만이 歷史發展의 眞正한 動力」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의문을 제기하여, 1980. 1. 11 人民日報에 게재된 戴逸의 「階級鬭爭 農民戰爭은 歷史를 추진한 唯一한 動力이 아니다」에 와서 단정적인 결론과 함께 단순한 歷史學界의 문제가 아니라 全國民的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戴逸은 階級전쟁이 역사진진의 動力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大前提를 부인은 않지만, 50년대의 論議가 생산력은 계급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것과는 달리 계급투쟁 자체도 生産力發展에 의지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生産力발전을 계급투쟁과 분리하여 놓고 생산력 발전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상을 갖도록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단순하지 않고 여러사람의 주장이 그 사이 진행되고 그 내용도 각각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먼저 戎笙은 1958년에는 讓步政策論에 바탕을 두고 封建制度나 政權문제보다는 生産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農民起義를 보려 하였던 사람인데, 1979년에 와서 封建社會의 生産관계는 비록 야만적이고 잔혹하지만 감정이나 도의적인 원칙을 가지고 규탄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封建主義 生産관계라 할지라도 一定한 역사단계에서는 生産力 발전작용을 촉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讓步政策論도 종전과는 달리 封建支配者측의 일방적인 讓步로만 보지 않고 農民도 양보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음을 太平天國의 天朝田畝制度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封建社會에서 農民鬭爭은 계급투쟁의 일종의 형식으로 최고의 형식이기는 하나 唯一의 형식은 아님을

주장하면서 「生産鬭爭」이라는 概念을 제시하고 있다. 生産鬭爭은 노동자와 生産工具와의 相互作用으로, 계급사회에 있어서 生産鬭爭은 계급대항중에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生産투쟁 자체가 바로 社會前進의 위대한 動力이고, 封建王朝의 成立단계에서는 통치자에 의해 객관적 경제 법칙에 맞도록 生産力 발전이 이루어 진다고 파악함으로써, 계급투쟁을 王朝의 國家權力이나 과학실험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生産力발전의 하나의 수단어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毛의 두가지 기본원리를 정면 반대한 것으로 이후 歷史動力論爭의 시발이 되고 있다.

이러한 戎笙의 주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하고 나온 것은 1979년 12월에 간행된 「中國史研究」 1979—4 號에 나온 沈定平의 「封建社會發展의 動力問題에 관하여」라는 글이다. 여기서 沈은 戎笙의 「생산투쟁」이라는 概念이 애매함을 반박하면서, 사회관계를 배제한 순수한 生産鬭爭이란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戎笙이 生産勞動과 階級투쟁을 발전단계가 다른 선후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계급대항은 社會生産의 일정한 단계에 이른 결과의 產物일 뿐만 아니라 生産관계가 본래 가지고 있던 구체적 사회표현이기 때문에 生産力과 生産관계의 모순은 필연적으로 계급투쟁을 통하여 표현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封建統治者の 改革을 통해서도 生産力의 발전이 추진된다는 戎笙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革命의 副產物로 보아야 하며 그 직접動力은 農民의 계급투쟁이고 改革 그 자체는 政治的 考慮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이보다 먼저 발표된 것으로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所長으로 있는 劉大年이 『近代史研究』 79-1號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刊) 1979. 10.에 발표한 「역사적 전진의 動力問題에 관하여」를 들 수 있다. 이는 그가 太平天國學術討論會에서 발표한 것으로, 太平天國이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農民戰爭으로 共認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당시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어 있는 歷史發展動力問題에 관한 이론적인 지

침서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階級鬭爭動力論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계급투쟁과 생산력 발전의 관계를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生産力의 발전은 계급투쟁을 통하여 歷史를 變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계급투쟁이 생산력 증가에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종래 農民戰爭論의 중심과제인 농민반란후 농촌의 피폐 파괴, 새 王朝의 農村安政策을 설명해야 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아울러 계급투쟁을 혁명적인 것과 反革命的인 것으로 나누어, 전자만이 역사의 前進를 추진한다고 하여 中國에서 수 많은 계급투쟁을 겪으면서도 社會主義가 늦게 이루어진 것을 설명함으로써 오히려 大前提를 무너뜨려 버리고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1979年 7月 『中國歷史博物館館刊』 79-1號에 王宏鈞이 「中國封建社會에서 生産力이 어떻게 階級對抗과 同時에 발전하였는가?」에서 讓步政策에서 農民戰爭의 成果(革命的 改造)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階級鬭爭動力論과 生産力動力論을 조화시키려 하여 계급투쟁의 형세가 讓步의 有無, 多少를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논리전개가 미흡한 편이다.

다음으로 沈의 論文과 같은 책에 실린 傅衣凌의 「明清時代 階級關係의 새로운 探索」을 들 수 있다. 傅는 계급투쟁이 역사발전의 動力이라는 기본입장은 밝히고 있으나, 明清時代 農民起義를 典籍을 통하여 조사하여 小生産者는 自足的 自然經濟때문에 生産確大가 저해되고 都市의 工商經濟의 발달을 막았으며, 農民起義의 一部가 되는 破産農民도 생산을 증시하지 않고 生産力 발전을 지연시켜 封建社會를 장기정체케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農民戰爭歷史動力論에서 더욱 떨어져 버리고 있다.

1979년 12월에 刊行된 『近代史研究』 1979—2 號에 발표된 宋士堂의 「歷史前進의 動力問題를 試論함」은 歷史動力論爭에 있어서 가장 수준 높은 것으로, 毛의 理論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를 경계하면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社會의 기본모순이 역사발전의 기본동력으로 작용한다는 大前提下에 生産力發展이 歷史發展原動力이고 歷史前進의 最終決定力量임을 승인하나, 그것은 生産鬭爭, 階級鬭爭, 科學實驗의 세가지 動力이 상황에 따라 作用정도를 달리하여 合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中國近代史에서 가장 활발한 계급투쟁으로 평가되는 太平天國에서 無産 계급이 영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1850년대 中國에 近代工業이 일어나지 못하여 무산계급진영을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여 다시 生産力動力論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西洋의 生産力이 中共보다 활발한 데도 불구하고 資本主義의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에 대해 통치자가 여러 정책수단으로 노동군중을 마비시켜 生産관계로 하여금 生産力 발전을 가능케 함으로써 社會基本矛盾의 극단적 첨예화가 저지 되었다고 說明함으로써 그는 生産力動力論者가 회피하였던 문제를 감히 들고 나와 階級鬭爭動力論者와 맞섰다는 의의는 있으나, 생산력 우월개념의 전체 논지에는 여전히 모순이 남아있게 되어 버린다.

1980년 3월 刊行된 『中國史研究』 1980—1號에서 蘇雙碧의 「階級鬭爭과 歷史科學」에는 生産力の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階級鬭爭動力論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생산관계가 生産力을 속박하고 있을 때,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낡은 생산관계가 변화되고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農民戰爭이 封建社會를 발전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新王朝初의 이같은 발전을 農民의 계급투쟁이 추진한 지주 계급의 讓步로 보지 않고 地主階級(封建統治)의 階級政策으로 파악하여 農民투쟁의 구체적 對象이 성립됨으로써 투쟁의 개념이 명확하게 되었다는 意義를 갖고 있다. 그러나 階級鬭爭을 말할 때, 그 자체가 農民의 계급투쟁이어야 하는 中共의 상황에서 그 견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이상의 諸論議는 戎筮이후 적극적인 生産力動力論이 나오면서 近代史

研究所 所長의 경고적인 견해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生産力動力論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鄧小平 政權의 現代化路線과 결부된 것으로, 새로이 등장한 實用主義者들의 歷史解釋論에서 그 根據를 찾고있다. 이 역시 學問이 政治問題와 결부된 것으로 다만 四人幫時代와는 달리 어느 한도까지의 自由化풍조 때문에 반대파에 대해 反革命따위의 죄목으로 탄압하는 일 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毛澤東사상 내지 毛澤東의 권위에 대한 格下운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戎篋이 農民戰爭論에 대한 古典的인 원리인 毛澤東의 주장을 원문 그대로 반대하고 있다거나, 戴逸의 글에서도 毛에 칭호를 붙이지 않고 있으며, 生産力動力論을 비판하는 劉大年조차 毛의 말을 전혀 인용하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論議는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中國역사에 대한 해석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리 毛의 古典的인 農民戰爭論에서는 農民起義를 生産力과 연결하면서 生産力의 양적 발전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中國史가 유달리 많은 農民起義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秦末이래의 封建社會에 대한 감정적 증오감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封建社會와 싸워야 하는 中國의 特殊性이 마르크스주의적 역사발전단계론을 분명하게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은 生産力動力論이 정치적 상황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하여 가겠지만, 첫째 生産力의 量的 發展이 정치적 사회적 관련과 분리하여도 좋은가 하는 문제와 둘째로 社會主義社會의 生産力과 資本主義社會의 生産力이 同質의 것으로 파악되어도 좋은가하는 두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 논쟁은 中美관계론의 의견대립과 함께 中國史學界의 새로운 소용돌이가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